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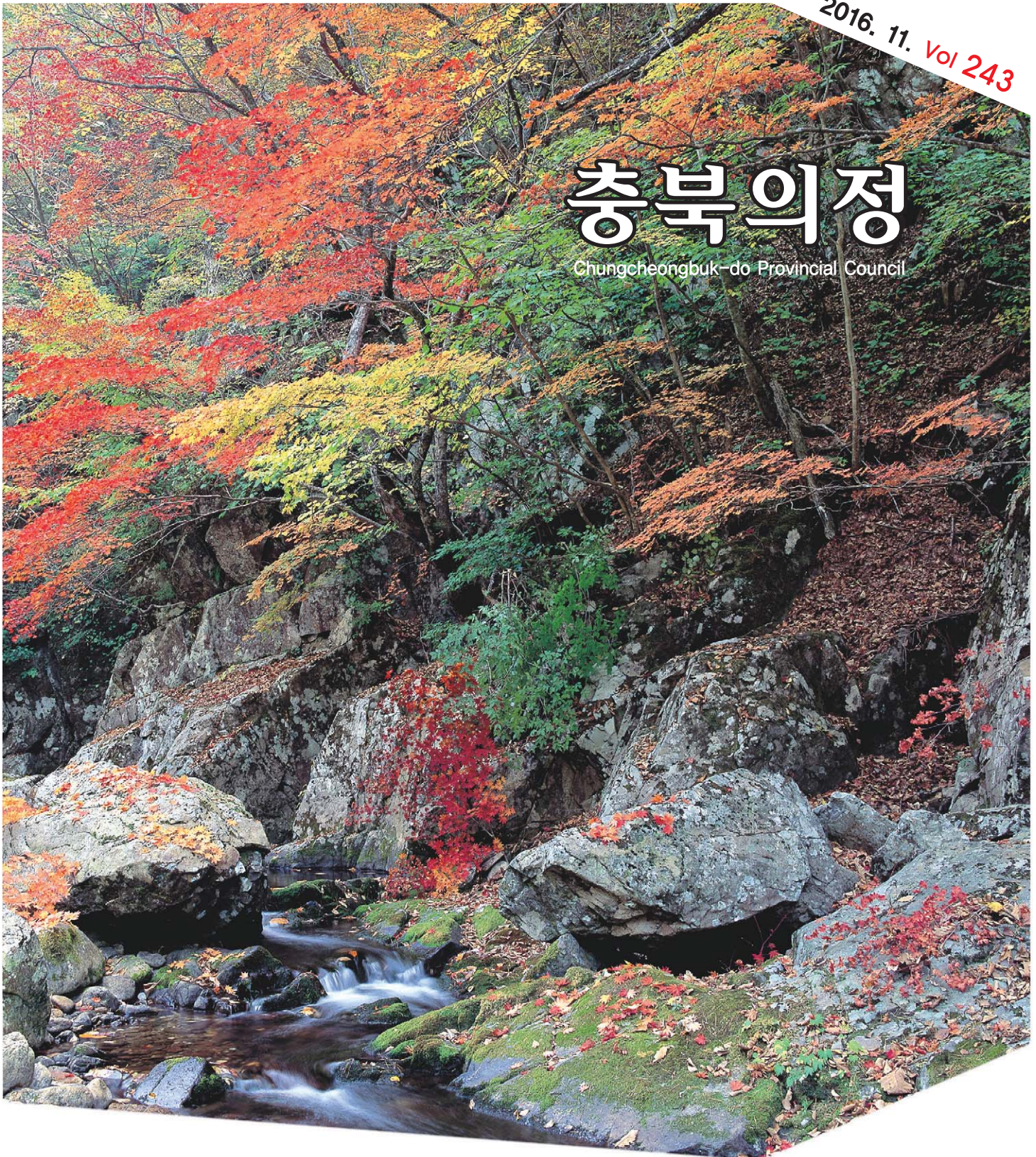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2016. 11. Vol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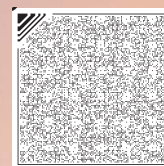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참붕어, 머리를 내미는 이유

푸른 새벽 호숫가
능수버들 사이
물안개 우주선 같이 떠 있는데
수면 위로 머리 쭉 내미는 저것들

참붕어에게는 말강한 저 물이
하늘이다

매일 아침 찰랑거리는 물 밖 세상으로
힘차게 머리 내밀어 보는 것은
그들에게는 '우주 정복의 꿈' 같은 것일지도 모를 일
언젠가는 지느러미 밑에 날개가 돌아
초록빛 하늘을 박차고 올라
독수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도
광활한 우주 공간으로 달려나가는
나로호의 꿈이 중력을 이겨내듯
끝내 부력을 벗어나
은빛 비늘 대신 찬란한 깃털을 세울
야무진 꿈인 것이지

창공을 꿈처럼 유평하는 저 독수리의 조상이
그들 어족이었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하듯



남 대 희

- 우리 詩 진흥회 사무차장
- 푸른솔문학 작가회 사무국장
- 덩아돌하 운영위원
- 효사랑요양원 원장
- 시집 : 『나무의 속도』
- e-mail : alchsf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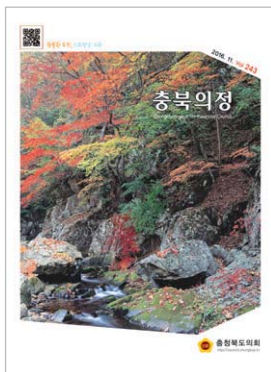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6. 11. Vol 243

Contents

- 04 | 제350 · 351회 임시회 주요내용
- 06 |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 · 규탄대회
- 08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농축수산물 법 적용 대상 제외 건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건의
- 09 | 의원 연구용역 보고회
- 10 | 청주에어로폴리스 및 MRO산업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 11 | 각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 18 | 주요처리의안
- 20 | 대집행부질문
- 26 | 5분 자유발언
- 29 | 의정활동 이모저모



소백산 추곡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
만추의 저 오색산이 품고 있는 맑디맑은
벽계수는 어디로 흘러 갈까. 넉넉하게
내어주는 저 가을 산에서 우리는 또 무
엇을 잃어내고, 또 무엇을 보아야 할까.
시원(始原)의 흐름으로 속세를 거쳐 도도
히 바다에 다다를 저 맑은 사냇물에서
우리는 따뜻한 겨울을 회원한다.

— 사진작가 김기운

- 발행일 2016년 11월
-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양희
- 발행처 충청북도의회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043) 220-5123 ● FAX (043) 220-5119
-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buk.kr>



충북도의회는 제350·351회 임시회를 열어 세종역 신설 반대·전기요금 인하 등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개정 조례안' 등 주요 현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제350·351회 임시회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전기요금 인하 등 정부에 촉구

'아동학대 예방·보호조례' 등 민생 현안 조례 제·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충북도의회는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50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부처로 이송하고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등 도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주요 시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도의회는 8월 29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한 임헌경, 윤홍창, 이양섭 의원은 △국제바이오·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에 따른 수출 및 계약실적 등의 관련사항 △2014·2015년도 결산 및 초과수입, 세금 과·오납에 대한 관련사항 △혁신도시 폐기물 대란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대책마련 등을 주제로 꼼꼼히 따져 물었다.

또 임회무, 장선배, 황규철, 이의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에 적극적인 대처 △미세먼지 감축 종합대책 시급 △농·축산업의 폭염피해 대책 마련 △충북도의 항공정비사업 포기과 향후 대책마련 등을 지적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통해 의사일정을



□ 제 350·351회 임시회 주요 처리 의안

- 제350회 18건: 조례안6, 동의4, 건의안 1, 결의 3, 기타 4건
- 제351회 32건: 조례안10, 예산안1, 동의17, 건의안2, 규칙1, 기타1건

□ 충청북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충북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1,826억 6,743만 9천원보다 993억 7,718만 5천원이 증액된 2조 2,820억 4,462만 4천원이다

이번 심사는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실시됐으며,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총 7개 사업비 37억 7,785만 7천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조정했다.

협의하고 「충청북도 미세먼지 정보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의원 연구활동 보고회 등을 실시했다.

개회 마지막 날인 9월 9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1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MRO산업과 관련한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강현삼, 이숙애, 임현경, 윤홍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관련 행정의 문제점 △MRO대책, 단합된 힘의 필요성 △고교 배정방식 변경 학교선택권 훼손 우려 △MRO사업 포기과 관련한 알권리 충족과 책임소재 등을 주제로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 실시된 제351회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12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비롯한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KTX 세종역 신설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10월 5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김학철, 황규철, 윤홍창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하여 △민선4기~민선6기 MRO사업의 차이점 △MRO산업에 대한 충청북도의 계획과 대책 △항공정비사업에 대한 대안 마련 및 학생 인성교육 등에 관한 사항들을 지적하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연철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기관이 앞장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이의영 의원은 “도 넘는 의장의 독선과 독주 중단”을 촉구했다.

10월 14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주요 현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임병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TX 세종역 신설을 위한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또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등 관련 부처로 이송하고 「KTX 세종역 신설 규탄대회」를 열어 오송역을 저속철로 전락시키고 그 위상을 훼손시키려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충북도의회, KTX 세종역 신설 반대에 역량 결집

‘KTX 세종역 신설 규탄대회’ 열어 즉각 철회 요구

충북·충남도의회, 청주·공주시의회와 저지 연합전선 구축



충북도의회는 10월 14일 제351회 임시회를 마치 후 도의회 현관 앞에서 ‘KTX 세종역 신설 규탄대회’를 갖고 오송역을 저속철로 전락시키고 위상을 훼손시키려는 KTX 세종역 신설을 강력히 규탄했다.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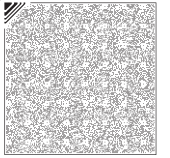
충북도의회는 10월 14일에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장이 제안한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에 위치한 오송역을 저속철로 전락시키는 것은 물론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세종역 신설에 대한 모든 논의를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검토 의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

문’을 통해 “동반발전이라는 충청권 공조합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소지역주의의 발로에 불과한 세종역 신설 움직임에 한없이 개탄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몇몇 정치인의 의도대로 KTX 세종역이 신설된다면 오송역은 저속철로 그 위상이 훼손될 것이고, 오송역을 세종시 관문역으로 하고 청주공항은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한다는 충청권 합의정신에도 위배되어 세종시와 충청권의 공조체계가 분열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2010년 개통한 오송역은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으로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에 위치하여 세종시 관문역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면서 162만 충북도민을 분노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도의회는 마지막으로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막대한 혈세낭비를 초래하는 세종역 신설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KTX 세종역 신설 규탄대회 열어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도의회는 도의회 현관 앞에서 오송역을 저속철로 전락시키고 그 위상을 훼손시키려는 KTX 세종역 신설에 강력히 항의하는 ‘KTX 세종역 신설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도의회는 “지난 총선에서 한국회의원이 세종역 신설을 약속하고, 최근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을 발주하면서 162만 충북도민을 분노와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은 물론 충청권 공조체계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몇몇 정치인의 정략적인 의도로 오송역을 저속철로 위상을 훼손시키려는 시류에 역행하는 행위를 바로 잡고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막대한 혈세낭비를 초래하는 세종역 신설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충북·충남도의회, 청주·공주시의회 공동 성명

도의회는 또 KTX 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에 이어 후속 조치로 충남도의회, 청주시의회, 공주시의회와 함께 신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충북·충남도의회 공동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의회가 최근 KTX 세종역 신설을 둘러싸고 충청권 갈등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충남도의회와 청주시·공주시의회가 연합전선을 구축, 세종시를 압박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하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는 10월 24일 오전과 오후 충남도청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잇따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타당성 조사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인 오송역은 지난해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이용객 수가 큰 폭으로 급증해 국가 철도망 X축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제역사문화의 관문인 공주역인 116년 만에 충남 남부지역에 처음 자리 잡고 호남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중부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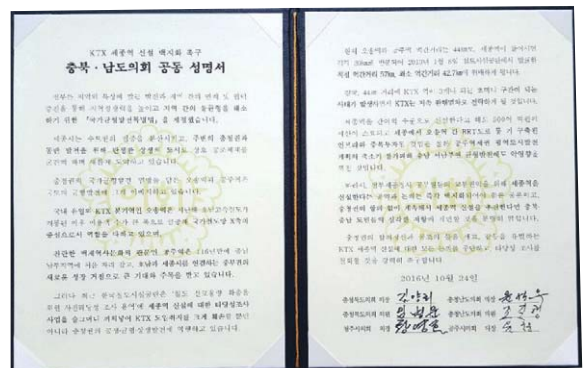
도의회는 “충청권의 합의 없이 세종역 신설 논의가 계속 추진될 경우 충북·충남 도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충청권의 합의정신과 공조의 틀을 깨고 갈등을 유발하는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타당성 조사를 즉시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는 10월 24일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 및 결의대회에 이어 충북·충남도의회, 청주·공주시의회와 함께 신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충남도의회 공동 성명서





도의회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내수 위축되고 농어촌 공동화 현상 빠르게 진행될 것”

충북도의회는 9월 9일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에서 산업경제위원장이 제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농수축산물 법 적용 대상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이송했다.

도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농축수산물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

지만 국민경제에 대한 농축수산업의 기여도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행대상 품목 중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도록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하게 됐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타파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하는 법의 제정취지는 대부분의 국민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주요 농축수산물의 경우 40%가량이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인 설, 추석 등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대부분 5만원 이상으로 이 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주택·교육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체계 개편 요구 “지난 폭염에 가정은 전기료 폭탄 때문에 에어컨을 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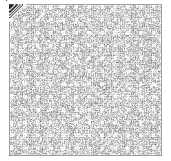
충북도의회는 10월 14일 실시한 제351회 임시회에서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부처로 이송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가정과 학교에서 마음 놓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것은 그림의 떡일 뿐 이었다”며 “그 이유는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문제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누진세의 폐해가 각 가정과 학교 등에 끼치는 원인에 대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1974년 이

후 지금까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탓”이라고 진단하고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여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다른 전기요금 중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 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도의회는 또 건의문을 통해 △누진을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 △학교전기요금 인하 등 해당 체계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개편 등을 요구했다.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

충북도의회는 9월 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의원연구회 임병운·정영수 의원 등 도의원과 용역수행 연구원,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수립 및 대안제시'를 위한 의정학술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실시된 의정학술 연구용역 보고회는 지난 5월부터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한 충북대 산학협력단 오노균 박사로부터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충북도 농촌관광에 대한 실태분석과 해외 농촌관광 선진정책 분석을 통한 충북도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시 등이 이어졌다.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국가에서 농촌 체험·관광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선정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충북도의 농촌관광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임병운 의원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농촌에 대한 기대를 상승시키고, 농촌관광 상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촌관광 방안마련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 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영수)는 지난 8월 2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직원, 한양대 융복합교육모델 개발연구단 유병규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방과후 학교 운영 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책임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 유병규 박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상황과 방과후 학교 담당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용역 추진계획과,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정영수 위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방과후 학교 운영의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 정책의 본래 취지와 교육적 효과를 살리고, 우리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연구용역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위원회는 향후 최종 연구결과 보고회를 갖고 연구결과와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청주에어로폴리스 및 MRO산업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MRO산업 등 항공산업 관련 발전방안 모색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황규철)는 10월 24일 오송 C&V센터에서 MRO자문위원, MRO관련 대학생 및 기업인,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에어로폴리스 및 MRO산업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항공정비 관련 전문가를 초청, 청주에어로폴리스와 MRO사업을 비롯하여 항공물류, 항공서비스, 항공부품 제조업 등 항공관련 산업 분야를 어떻게 유치·발전시키고 클러스터화 함으로써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황규철 위원장의 주관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중원대학교 이종희 교수의 ‘세계 MRO산업 동향과 한국 MRO산업’, 초당대학교 윤용현 교수의 ‘청주국제공항 MRO사업 추진 SWOT분석’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광주대학교 최세종 교수, 산업연구원 홍진기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열린 토론을 펼치며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이종희 교수는 세계 항공운송 동향, 세계 MRO 시장동향에 대해 언급하며, 항공수송 여객기의 증가 추세에 대한 현황을 설명과 함께 세계 군용기 현황, 민간 항공기 MRO 시장 성장, 정비분야별 성장 예측, 국가기관 및 소형항공기 MRO시장 규모 등의 현황을 강조했다.

윤용현 교수는 항공산업과 MRO, 항공MRO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 항공MRO 사업의 SWOT분석과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5세대 전투기 군MRO산업유치, 항공부품 조달



10월 24일 오송 C&V센터에서 MRO자문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에어로폴리스 및 MRO산업 향후 발전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업체 유치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최세종 교수는 군MRO나 경정비 격납고 조성으로 청주공항의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진기 연구위원은 싱가포르의 MRO산업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을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품업체와 5세대 전투기 유치를 제안했다.

객석 참여자 제안으로 MRO산업은 임율이 크게 사업 성공을 좌우 하므로 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의 항공정비학과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인력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MRO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방향 설정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황규철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로 청주에어로폴리스 및 MRO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50 · 351회 임시회

특위구성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병운)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기타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8월 29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제3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또 간담회를 열어 윤리·장애인안전대책·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과 충북도의회 회의규칙 개정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9월 9일 개최한 제2차 위원회에서는 도정 주요현안들을 점검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위구성의 주요 내용으로 윤리특별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2018년 6월 30일까지 의원의 자격, 윤리,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되며,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원대책 등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7명 이내의 위원들이 2017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는 항공정비산업전반에 걸친 점검과 진상규명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7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2017년 2월 28일까지 활동한다.

그리고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제35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박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심사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일부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했다.

동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의장의 선거방법을 명확히 하고, 임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하며 예산심사의 기본원칙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삭감예산 증액 시에는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수정했다.

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0월 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50 · 351회 임시회

충북도 아동학대 및 빈곤아동 지원근거 마련



10월 11일 옥천군 옥천읍 소재 충북도립대학교를 방문하여 발효실험실 등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광희)는 제350회 임시회를 열고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박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위탁 시 절차 등에 대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했다.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미세먼지에 관한 경보의 내용과 기준,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미세먼지 오염도 경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

제351회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등 총1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윤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는 아동보호 및 빈곤아동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관 협치 기구인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확대·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2016년도 정책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위원회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총 223건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 요구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학철)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부서의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6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연철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등 경관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서는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타 지역의 케이블카 적자운영 실정을 지적하며, 환경파괴 최소화, 흑자운영 및 관광콘텐츠 확보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실시된 정책기획관의 현안업무 보고에서는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현황을 듣고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반영, 도민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기 전에 제1충북학사와 제2충북학사를 방문해 건립예정 부지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박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제2충북학사 부지매입과 관련한 「2017년 정기분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9월 21일 서울시에 위치한 건립대상지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주변의 철도, 모텔 등은 기숙사용도의 건물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3개월 내 최적 대안지를 찾을 경우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지난 회기 시 심사보류되었던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상한 금액을 삭제해 위원회 심의대상 공사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북부출장소와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10월 7일 충주종합운동장을 방문해 2017년 전국체전 시설 등 주요 체육시설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50 · 351회 임시회

곤충산업 활성화 · 신규사업 예산 효율성 증대 촉구



10월 7일 청주시 미원면에 위치한 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황규철)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8월 29일 심사한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했다.

8월 30일부터 이틀간은 통영관광개발공사, 거제농업개발원 등을 방문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주요시설을 견학하고 직무역량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한 직무연찬을 실시했다.

이어 9월 5일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등을 방문해 충북 유망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이로 인한 경제도약을 당부했다.

그리고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축산위생연구소, 대추연구소 등의 현장방문과 2017년도 신규사업 사전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먼저, 10월 5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충청북도의회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10월 6일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17년도 신규사업 사전 간담회」를 갖고 “생산적 일손 봉사 지원 사업이 올 7월부터 시행중인데 농가 부담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파악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10월 12일 실시한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정국과의 간담회에서는 “미래성장 곤충산업 육성사업에 내실을 기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 채택 등 현지확인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임순목)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및 속리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8월 31일 속리산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산악구조 및 목조문화재 화재진압 등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을 당부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고하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국립공원 관리 실태와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소방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및 산불예방 최소화를 주문했다.

또 9월 2일 충청도 남부권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를 방문하여 주요현안 청취 및 장비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도로보수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현안 및 건의사항 청취에 이어 소통의 시간을 갖고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도로정비 등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충청북도 저수지 ·

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 · 의결하고,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을 채택해 관계부처에 이송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10월 10일에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오송역을 저속철로 전락시키고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세종역 신설에 대한 모든 논의를 백지화 할 것과 세종역 신설 타당성조사 검토 의뢰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도청 신관 정문에서 본 위원회가 제안해 채택된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을 토대로 실시한 「KTX 세종역 신설 규탄대회」에 참석해 도의원 전체가 여 · 야를 불문하고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역량을 결집했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도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충청북도 저수지 · 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



8월 31일 속리산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한 후 신속한 초기대응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제350 · 351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



위원장
정영수 의원



부위원장
이종욱 의원



윤홍창 의원



이숙애 의원



임현경 의원



최광옥 의원



10월 6일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에 위치한 제천야영장 매입부지를 방문하여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영수)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충청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 등을 실시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서 이종욱 의원은 충북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전시관 현대화 사업 연구용역'과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예산확보가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숙애 의원은 충북교육과학연구원을 대상으로 상담자원봉사자와 진로코치들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보완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8월 30일 옥천지역 소규모 중학교인 이원중학교와 옥천야영장, 옥천도서관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듣고 빈틈없는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이어 8월 31일 청주중앙중학교와 충북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후 안전교육활동과 전국체육대회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와 선수들을 격려했다.

제351회 임시회 중에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충청북도교육청 공립 대안학교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구) 및 청주시 후기 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또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 학교(두촌초 등 6교) 설립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안건을 수정 가결하게 된 것은 충주기업도시내 (가칭) 용전중학교의 부적합한 부지선정과 불합리한 매입단가, 용벽의 안전성, 인근아파트 일조권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이에 대한 보안·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이버침해사고대응시스템구축비 등 총 7건에 43억 2,785만 7천원을 감액 의결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10월 1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1,826억 6,743만 9천원보다 993억 7,718만 5천원(4.6%)이 늘어난 2조 2,820억 4,462만 4천원으로, 정부추경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가이전수입이 5.2% 증액된 1조 7,09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6% 증액된 2,953억 원, 기타이전수입이 108.9%가 증액된 39억 원,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4.2%가 증액된 614억 원이며 금융기관 차입금 874억 원과 기타 전년도이월금 1,244억 원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총 2조 1,527억 원으로 801억 원(3.9%)이 증액됐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총 50억 원으로 17억 원(51.9%)이 증액되었고, 교육

일반 부문은 총 1,243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6억 원(16.5%)이 증액되었다.

주요세출 사업은 교육용 컴퓨터 교체, 교육기자재 확충, 각종 실습현대화 사업 등 교단환경개선,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등을 통한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LED 전등교체, 학교석면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개선과 행정시스템 구축 및 관사 매입·신축 등 행정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번 심사는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실시되었으며,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총 7개 사업비 37억 7,785만 7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했다.

윤홍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특위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했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50 · 351회 임시회

[제350회 임시회]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장선배 의원)

- 미세먼지에 관한 경보의 내용, 기준, 방법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오염도 경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종규 의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을 수립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김인수 의원)

-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아동복지법」 제48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언철흠 의원)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신설,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등 경관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윤홍창 의원)

-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위·수탁 협약 종료(2016. 12. 31.)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자연학습원 운영의 재협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제351회 임시회]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대표발의 : 임순묵 의원)

-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 박한범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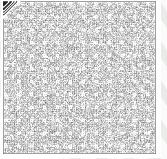
- 의회 운영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규정 변경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한범 의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양섭 의원)

-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주 의원)

-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확대 및 개선으로 민관 거버넌스의 강화를 도모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윤은희 의원)

- 아동보호, 빈곤예방 등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충청북도 저수지 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광진 의원)

-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의무를 규정사항 삭제와 일부 조문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업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강현삼 의원)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한 절차를 일부 수정 등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정영수 의원)

- 공립대안학교 운영의 체계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등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이숙애 의원)

- 현실에 맞지 않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산업용보다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개선 건의

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 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재정법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조사와 신설 및 전문경력관 조정 등 정원 변동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중 일부사항 수정

2017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재정법」 따라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재정법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재정법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재정법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연구원 출연 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재정법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임 현 경 의원 (교육위원회)

화장품뷰티산업 · 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 성과는

바이오엑스포 수출 및 계약 관련

[질문] 2014년 바이오엑스포 수출상담 실적과 계약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이오산업엑스포 수출상담 실적은 약 1조 1,600억 원, 계약추진 실적은 205건에 218억 원 정도입니다.

[질문] 2014년 바이오엑스포 수출계약 실적을 살펴보면 B사 115억, C사 9억 2,000만 원 등 충북 수출 계약 총액 93%입니다. B사 동그라미 친 부분에 뭐라고 있습니까?

[답변] 50달러라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받은 35매 수출상담 카드 중 두 매가 50달러와 20달러로 기록되어 있고 33매가 모두 빈 칸입니다. 그런데 B사가 115억 원 수출계약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답변] 그건 'B사의 바이어가 이 정도라면 의향이 있다' 라고 제시한 것이고, 현장계약 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 집계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록해서 백서를 만드는 것이지 말로 한 것을 집계하는 것입니까?

[답변] 당연히 양 기업 간 상담이 있었고 어느 정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다 집계한 것입니다.

[질문] 상담카드를 보면 날짜 및 작성자도 없고 자기가 본인에게 상담했습니다. 금액은 21장 중 1장 87달러의 근거밖에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9억 2,000만 달러를 수출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수출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양자가 진정성 있게 애기를 했다는 것을 조직위에 제출한 것입니다.

[질문] B사든 C사든 근거 없이 백서에 631억 원, 256억 원, 1,085억 원을 수출했다고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행사에 743억 원을 갖다 썼습니다. 내 돈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답변] 지적하신 날짜 및 환율 문제 등 미시적으로 본다면 적지 않은 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화장품 · 뷰티엑스포 전시회를 나름대로 큰 뜻

에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권 및 후원금 관련

[질문] 입장권 판매내역, 유료입장객 수, 무료입장객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013년 오송화장품 · 뷰티세계박람회 입장객은 119만 명, 판매내역은 71만 매 정도, 유료입장객 수는 60% 정도입니다.

[질문] 2013년 화장품박람회 입장권을 70만 7,000장 판매했고 회수한 양이 59만 5,000장입니다. 따라서, 11만 2,000장의 티켓이 사장되었으며 강매 논란이 있습니다. 티켓 판매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답변] 입장권 선판매제도 때문에 부득이 일부 도민들께서는 애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장차 줄어들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엑스포 및 박람회 실적 관련

[질문] 수출실적 256억 원 중에 충북이 133억 원이고, 그 중 B사와 C사를 빼면 9억 남습니다. 2014 바이오엑스포는 빈껍데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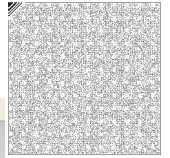
[답변] 충북을 바이오 및 화장품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이는 경기도와 경북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경기도에서는 2013 K-BEAUTY박람회를 19억 원으로 개최했는데 우리는 269억 원을 들였습니다.

[답변] 2013년과 2014년 많은 돈을 들인 것은 충북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기업지원 등의 다양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질문] 충청북도는 최근 4개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도 그 성과가 충북기업 매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향후 납득할 만한 자료를 10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2014·2015년 결산 및 초과수입, 세금 과오납 관련



윤 홍 창 의원 (교육위원회)

2014년 및 2015년 결산 관련

[질문] 충청북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도 2,187억 원, 2014년도 2,834억 원, 2015년도 3,517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도민들이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수지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그것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듬해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잉여금이 있을 때 지방채 상환이나 재산·기금 편입을 검토해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 혹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지방채로 상환할 수는 없지만 일부 상환을 하면서 또 일부는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및 2015년 초과수입 관련

[질문] 최근 2년간 초과수입을 보면 2014년 1,073억 원, 2015년 882억 원이 발생 했습니다.

충청북도 세입재원 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동산 거래가 많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것을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2015년도에 882억 원 초과수입이 발생 되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초과수입은 연도가 지나야 일반적으로 파악이 되고, 또한 거래세이기 때문에 유동적이어서 그렇습니다.

2014년 및 2015년 집행잔액 관련

[질문] 예산확보 후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 발생의 경우는 추경에 감액조치하거나 그 재원을 시급히 활용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으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도표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2014년 집행 잔액보다 2015년도 집행 잔액이 다소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질문] 명시이월액이 전년 대비 351%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알겠습니다.

2014년, 2015년 세입금 과·오납 관련

[질문] 2015년도 세금·과오납 및 이중부과 현황과 관련하여 건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세금·과오납 금액은 상당히 늘어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 늘어났습니까?

[답변] 청주 동남지구아파트 연부계약이 취소됨에 따라서 금액이 크게 발생이 된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질문] 과·오납 착오부와 액수가 지금 2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납부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이중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돌려준 금액이 과·오납 착오부과로 잡혔다.

[질문] 지난번에 제가 지적해서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축소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아파트 동남지구 택지개발 같은 아파트 부지가 많이 개발이 되면 과·오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과·오납 금액과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지사께서는 근거 없는 세금부과와 허술한 세정 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 섭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혁신도시 폐기물 대란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 촉구

진천·음성군의 폐기물 처리 관련

[질문]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충북도는 현재 상황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천군과 음성군은 합의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여에 걸쳐 453억 원을 들여 음성군 맹동면에 광역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은 2010년 6월 7일부터 가동되어 하루 50m³ 매립을 기준으로 2035년 9월까지 운영 예정이고, 소각시설은 가연성 폐기물 40톤, 음식물 10톤 등 하루 총 50톤 처리 규모로 2011년 5월 12일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원님의 서면자료요구 등을 토대로 현장 실태파악을 한 결과 의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하루 처리 규모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이 초과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소각로 용량 초과로 인해 소각처리 되지 못한 폐기물들이 시설 부지에 야적되고 있어 악취 등의 폐해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리시설 추가설치의 시급성 관련

[질문]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계획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량이 제대로 예측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계획단계부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책임에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절차상 기초자치단체의 타당성 용역 및 설치 계획서를 도에서 1차로 검토하고 취합하여 이를 환경부로 올려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예산상황과 타당성 용역 및 설치 계획

서를 토대로 현재의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도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수요조사와 폐기물의 발생 억제정책, 폐기물의 재활용 및 에너지화 대책, 나아가 국비지원 요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폐기물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진행했습니다.

현재로서 처리시설 확장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종합적인 폐기물처리대책의 추진과 주민참여 유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설치부담금 재산정 필요성 관련

[질문] 폐기물 과다 발생문제가 인지된 시점을 2011년 하반기로 잡더라도 이미 5년 이라는 아까운 긴 시간을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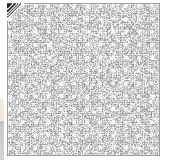
첫째, 소각 가용량 이상으로 발생해 적체되고 있는 폐기물의 우선 처리를 위해 진천군·음성군과 함께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장기적 대책으로 소각로 증설 또는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등 방법모색에 있어 진천군·음성군은 지금까지 소모적인 핑퐁게임 양상만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적극 개입해 올 9월 안으로 시설에 대한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혁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진천·음성군 사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재산정 다툼에 대해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가부(可否)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의원님 말씀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충북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여러 가지 애로점에 귀 기울이며 중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4기 ~ 민선6기 MRO사업의 차이점 관련



김 학 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청주공항 MRO 사업 좌초 관련

[질문] 충북경제의 미래를 위해 전상헌 경제자유구역 청장을 경질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답변] 지난 9월 12일 발표와 같이 경질의사는 없습니다.

[질문] 지난번 MRO특위 2차회의시 현장설명회에서 부지가 굉장히 협소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애초부터 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간 이후 소위 '정우택 전 지사 원죄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지금 와서 '누가 책임이다' 하는 문제는 MRO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MRO 1지구는 4만 6천여 평 정도 되는 삼각형 모양의 부지이며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에 따라 활주로 중심축으로부터 좌우 각 300m 구간은 항공안전구역 제1구역으로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현장설명에 따르면 6,600평 정도가 37m 높이의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당초 아시아나항공에서 요구한 F급 항공기 정비시설 6베이에 훨씬 못 미치는 2.5베이 정도 규모가 신축 가능한 부지입니다. 지사께서는 2.5베이 정도밖에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는지요?

[답변]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얘기하기 어려우나 꽤 상당한 정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 꽤 상당한 정도라면... '이미 청주공항에 MRO 사업이 들어올 입지가 아니었다.' 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아시아나와 MOU를 체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것은 카이(KAI)도 마찬가지이며, 4만 6천 평 규모에 적합한 소규모의 MRO 개념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MRO사업의 추진사유 관련

[질문] 그렇습니다. 대형정비시설 즉, 국가 주도 규모의 MRO 시설은 현재 청주공항의 부지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초부터 그 규모에 맞게 선택을 했었어야 합니다. 비유를 하면 '사과 한쪽을 담을 수 있는 크기의 그릇에 수박을 담으려고 여태껏 추진하며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 지도 3년 반이 지났습니다.

현 지사께서는 사업을 이어받아 새로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7년이나 있었는데도 부지의 고도제한 문제와 철도로 에워싸여져 있어 부지의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는 문제점 등을 인지하시고도 사업을 이렇게 끌고 온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충청북도에서는 그릇에 맞는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애초에 부지가 대형정비시설에 맞는 여건이었다면 좋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소규모 MRO 시설을 유치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질문] 2012년 11월에 청주공항 항공정비단지 공항개발 기본계획안에는 이미 고도제한과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해당 부지에 저가항공사를 중심으로 한 경량항공기를 중심의 MRO시설을 유치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5년 7월 31일 샤프에비에이션이 중심이 되어 티웨이, 이스타, 제주항공 등 저가 항공사들이 컨소시엄을 맺고 인천공항에 정비고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우리 충북이 유치했었어야 될 업체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잡지도 못하는 것에 얽매이며 허송세월을 보내다 정말 잡아야할 업체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황 규 철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MRO 사업에 대한 충청북도의 계획과 대책은

MRO 사업 추진경과 및 진행상황 관련

[질문] 민선5기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후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MRO사업 부지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모든 위원들이 부지의 모양이 삼각형으로 좋지 않고 주위에 철도가 있어 확장하는데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땅이 15m 정도 밑으로 꺼져 있어서 성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사님은 이에 대해 알고 계시죠?

[답변] 예, 알고 있습니다.

[질문] MRO사업을 충북도가 추진하게 된 경위와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MRO사업은 2010년 7월에 청주공항이 국토부에서 시범단지로 지정 되었고 또, 대통령께서 청주공항에 직접 방문하여 MRO사업을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 공군본부와 부지교환 협약을 맺고 부지교환에 따른 차액이 한 120억 원 되는 중에서 94억 원 정도가 이미 2010년 3월에 추정 예산에 편성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투자활성화 대책 · 항공정비사업 육성 관련

[질문] 2015년도 1월에 정부의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 방안 시 우리 항공정비사업 육성방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 청주공항이 항공정비시범단지로 지정된 것과는 별개로 어느 공항이든 신청 시 심사를 통해 점수가 높은 곳을 MRO사업 지구로 선정하는 공개경쟁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질문] 국토부가 MRO 입지를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타 지역과 경쟁체제로 바뀌는 매우 중요한 전환 기였는데, 원점에서 MRO 사업을 재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도 MRO사업을 계속 유지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건가요?

[답변] 도내 분위기가 MRO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

다는 희망과 염원의 뜻을 느꼈습니다. 또 그때 당시 공개경쟁으로 전환을 할 경우 아시아나 항공측과 우리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전환 되더라도 아시아나가 참여하면 당연히 우리도가 사업을 선정 받아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공개 경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토부의 가장 큰 조건이 항공운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MOU체결 8개 업체의 현재 상황 관련

[질문] 우리 충청북도는 작년 12월 1일 스타항공우주 외 2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8개 업체와 총 3회에 걸쳐서 13만 5,400m² 면적에 1,235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사업을 포기한 이후에 이 기업의 현재 상황은 어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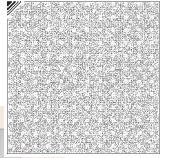
[답변] 얼마 전에 경자청장이 8개 기업과 회의 및 간담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 기업체는 일정상 참여를 못했고, 나머지 기업체들은 2지구가 아닌 1지구에 땅을 제공하면 입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MRO 산업에 대한 계획 및 대책 관련

[질문] 남아 있는 과제는 우리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지 기반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지 활용 방안이나 다시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현재 상태에서 용역까지 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또 청주시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해 해결할 것입니다. 또 국토부와 여러 가지 사안을 의논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인성교육 · 청주공항 MRO사업 관련



윤 홍 창 의원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관련

[질문] 우리 도가 한 해에 인성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인성교육의 그 범주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워서 얼마만큼 예산이 든다고 경계를 명확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1년에 약 130억 원의 예산을 인성교육에 편성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이 점차 난폭해지고 거칠어지는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종래에는 사소한 어떤 감정다툼 또는 말싸움 같은 것도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폭력적인 케이스가 되고 또 그것을 염려하는 통계도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영동에서 한 중학생이 또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400만원 가까운 돈을 갈취했는데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것은 교육적 사안과 함께 범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매년 100억 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충북 교육에 왜 이렇게 거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원인 면에 있어 교육적 책임도 없지 않고 또 이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만큼 대책도 교육·사법기관과 온 사회가 같이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음주 · 흡연 및 교원침해 관련

[질문]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충북지역 청소년 흡연율이 9%로 전국 평균 7.8%보다 1.2% 정도 높습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제가 취임 전에도 이른바 학생들의 교통지수 또는 적색지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여러 가지 대

책을 세웠습니다만 음주율과 흡연율은 아직 다른 비율에 비해서 많이 호전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질문] 충청북도 교권침해 현황이 2014년 35건, 2015년 99건, 2016년 1학기 45건으로 2015년 교권 침해 사례가 187%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최근에 교권보호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하고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선생님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적 장치가 좀 소홀했다는 것을 성찰하면서 그 부분도 보완하고자 합니다.

청주공항 MRO사업과 관련

[질문] 에어로폴리스 개발 예산 221억 원이 처음 투입될 때 신중하라고 했던 도의회의 요구를 경자청이 제대로 점검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때 저희들의 판단미숙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카이와 아시아나에서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했었기 때문에 부지를 조속히 개발하기 위해 의원님들께 부탁했던 것입니다.

[질문] '이 사업이 실패하면 사과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MRO가 실패한 것은 아니고 아시아나를 유치하는 것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MRO를 포함한 항공 관련 산업을 복합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MRO 사업이 잘 안 됐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옮겨 가면서 의원들과 협조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어쨌든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그 방안과 청주시 의견을 함께 참고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임 회 무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위한 범 도민 차원 대처요구

최근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세워 청정지역인 괴산군과 인접한 경북 상주시 용화면 일원에 문대온천개발을 추진했으나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걸친 법정공방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재추진한 온천개발도 도민 여러분과 괴산군민의 적극적인 저지와 대처로 2015년 대구지방법원 결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반려해 그 끝을 본 듯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또 다시 상주시로부터 2015년 제출한 초안대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문이 괴산군에 접수돼 반대의견 제출과 공청회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운동에 청주시·충주시·괴산군민 일부만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 확산방안이 절실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황 규 철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농축산업의 폭염 피해 대책마련 촉구

올해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유난히도 무더위 8월 중순의 최고 기온이 34.7까지 올라 전년 대비 3.9도나 높았습니다. 이렇듯 폭염으로 인한 불볕더위가 약 한달 가까이 지속되며 사람은 물론 가축·농작물들도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내 농·축산물의 폭염 피해는 더욱 심각하며 7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발생·접수된 가축피해가 총 80건에 2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축산농가 재해보험을 100%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확산 방지차원에서 물관리가 어려운 준산간지와 가뭄피해지역에 살수차 공급, 관정설치 등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분야는 현장 확인과 점검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현장중심의 영농활동과 점검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선 배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미세먼지 감축, 종합대책 추진 시급하다”

충북은 경기도 다음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발생빈도도 매우 잦은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2020년 대기질 개선 목표로 추진전략을 제시했으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행계획 마련과 계획추진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의 미세먼지는 정부대책만 따라 해서는 안 될 정도로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이며, 자체적인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증설한 도내 각 권역별 모니터링 강화, 배출원별 감축목표 설정을 통한 구체적인 미세먼지 감축방안 마련, 미세먼지 감축 관련 예산확보, 각 사업장 오염배출 기준강화 등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 보호는 물론 우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시급합니다. 충북도는 시·군 협력체계를 갖춰 대기질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 영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항공정비사업 포기와 향후 대책마련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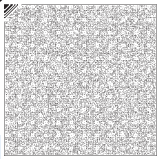
충북의 MRO사업 포기는 충북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 유수의 MRO업체와 접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해외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해외정비물량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양하고 폭넓은 항공분야의 우수기업을 유치해 충·충북의 미래를 책임질 명실상부한 복합항공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군수MRO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MRO 물량의 70%정도가 해외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군과 긴밀히 협의해 충북도가 선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항공산업육성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의 신뢰와 지혜·역량을 모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 현 삼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동네잔치'로 전략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 대회 관계자와 공무원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관중수도 거의 반토막으로 초라한 동네잔치로 전략했습니다.

전 사무실 직원의 행사장 동원으로 인한 혼란과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심지어 소방서 직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들까지 관중으로 동원돼 소방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는 국제대회를 표방하는 대회였던 만큼 올림픽에 버금가는 계획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으며, 전 세계적 관심은 커녕 전국적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도민들에게조차 외면 받는 대회가 되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도의 차기대회 개최는 먼저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이번 대회 성과를 냉철히 평가하여 대회의 연속성에 대한 면밀한 성찰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임 현 경 의원
(교육위원회)

고교 배정방식 변경 학교선택권 훼손 우려

충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청주시 평준화고 고입전형 배정방식 변경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구)청원지역 비평준화 특정고교로의 쏠림현상, 근

거리나 1순위 희망학교 배정의 어려움, 우수학생 타 시·도 유출 등으로 객관적 검증 없이 실험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1군 상위 10%가 아닌, 교육수요자가 가장 선호한 1군 상위 30% 배정방식으로서의 개선입니다.

둘째, 진정한 의미의 고교평준화를 실현하기 위한 고교 배정방식의 전면 재검토입니다.

셋째, 철저한 대비 없이 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학생 관리 프로그램 개발, 학습 분위기 조성, 교사의 역량강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숙 애 의원
(교육위원회)

청주공항MRO사업 대책, 단합된 힘이 필요해

청주공항 MRO사업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청주공항을 MRO산업 단독시험단지로 선정했던 국토부가 8년 만에 공모방식으로 변경한 데 있는데도 국토부에 근본적 책임

은 묻지 않고 집행부의 책임만을 물으며 특위구성 및 경질을 주장한 결과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근본적 책임이 있는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및 대책을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시험단지로 지정한 청주공항 MRO단지에 국가주도의 사업자유치와 단지개발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의 신의를 저버린 아시아나항공에도 일말의 책임을 물어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충북도는 막중한 책임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청주시, 경자청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투자와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윤 홍 창 의원
(교육위원회)

국가지정 MRO사업유치 실패 진상규명·재발방지 촉구

우리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왔던 MRO사업이 아시아나의 포기로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해당상임위

와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수차례 사업추진에 대해 우려·경고하면서 경남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MRO사업 유치 대책·준비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9일 아시아나의 충북 MRO사업 포기에는 따른 지사님의 기자회견은 도민들의 상실감·분노를 위로하지 못하는 졸속과 책임회피로 얼룩진 실망스러운 그 자체였습니다. 도의회는 수백억 원의 혈세를 의결한 당사자로서 KAI의 충북유치 실패와 아시아나의 MRO사업 포기과정을 도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려야 합니다.

지사님과 경자청은 도의회 MRO특위에 철저히 협조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이뤄지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연철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자

지상파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목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어 사용비율이 뉴스가 39.4%, 예능이 33.9%, 어린이 프로그램도 16.9%에 달한다고 합니다.

충북도의 주요사업 설명서에서도 행정국 17.6%, 문화체육관광국 16.4%로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일본식 법률·행정용어의 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영어식 표현까지 가세해 사용하는 행정기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엔지오, 서포터즈, 코디네이터, 콘텐츠’ 등 무분별한 외국어나 외래어는 정작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들은 뜻을 몰라 어리둥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문화국수주의’를 표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충북도와 도 교육청에서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올바르게 사용해 도민에게 쉽게 다가서는 정책 운영을 희망합니다.



임병운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KTX 세종역 신설을 위한 용역 즉각 중단하라

KTX 세종역 신설 연구용역과 관련해 충북도의 대책과 저지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송역은 세종시의 관문 역 역할을 해 왔음에도 철도시설공단은 충청권 공조를 파기하는 부적절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만약, KTX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첫째, 오송역과 인근 공주역·서대전역의 위상과 가치가 훼손돼 충청권의 분열·지역갈등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둘째, 역간 거리가 짧아 속도가 저하되어 저속철화 될 것입니다. 셋째, 충북도와 세종시 양 자치단체의 민감한 사안을 이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철도시설공단의 일방적 용역추진은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오직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방안은 오송역세권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도는 KTX 세종역 설치 연구용역과 관련해 조속히 도민들의 역량결집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도님은 의장의 독선과 독주 중단을 촉구한다

충북도의회 의장의 독선·독주로 빚어지고 있는 위법 사태들을 우려하며 의회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의장은 의원들의 의사 무시는 것은 물론 조례·회의규칙 위반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법규를 위반한 의사결정입니다. 의장은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서 특위구성 결의안을 처리하며 여러차례의 무기명 투표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둘째, 회의진행 범주를 벗어난 월권적 행위입니다. 의장은 독단적으로 MRO사업 전모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며 특위구성을 강행했습니다.

셋째, 의장불신임 결의안 반려입니다.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 상정을 포함해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 보장과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합리적 의회운영을 촉구 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를 받습니다.



- 충청북도의회는 2016년 11월 18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 평소 보고 느끼신 사항을 제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제보기간 : 2016년 11월 18일 까지
- 제보내용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할 사항
예산 낭비,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도민 불편 사항



▲ 충북도의회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고성·속초 일원에서 국회의원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초빙하여 사례중심의 의회운영과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대비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8월 3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15명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10대 의회 하반기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도议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8월 3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10대 의회 하반기 의정모니터 45명을 위촉하고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하기 위한 도민과의 소통강화에 나섰다.



▲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청주밀레니엄타운 광장에서 개최된 '2016농특산물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각 지역의 특산품들을 둘러보고 축하와 함께 노고를 격려했다.

충청북도의회



▲ 충청도의회는 10월 1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전은순) 회원 30여명을 초청해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실시했다.



▲ 충청도의회는 9월 3일 김양희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충청도청 정문앞에서 '청소년박람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책·복지위원회



▲ 8월 30일 청주시 사직동 소재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진행과정 등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10월 11일 괴산군 청천면 소재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청취한 후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행정문화위원회



▲ 9월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충북학사와 제2충북학사 건립 후보지를 방문해 관자자로 부터 현황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 10월 10일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정구 경기가 열린 충남 홍성군 광천생활체육공원을 방문해 충북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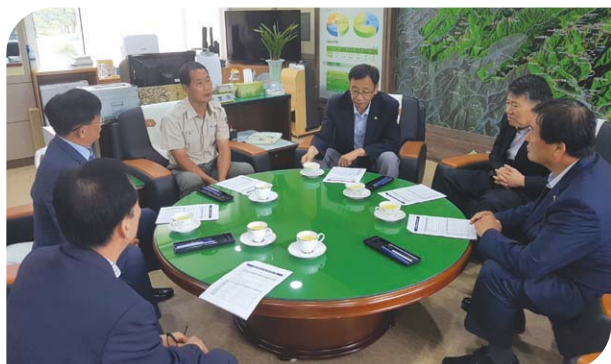


▲ 8월 31일 경남 거제시농업개발원을 방문해 산업곤충 현황과 아열대기후로 인한 과수재배 현황 등을 듣고 충북도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모색했다.



산업경제위원회

▲ 10월 7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축산위생연구소를 방문해 관계자로 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 8월 31일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듣고 시설을 둘러본 후 안전사고 및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

▲ 9월 2일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8월 31일 충북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참관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교육위원회

▲ 10월 6일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에 위치한(가칭)용전중학교 매입부지를 방문하여 관계자로 부터 현황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성명·성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